

가족스트레스와 가족탄력성이 가족적응에 미치는 영향 -재가요양서비스 부양가족을 대상으로

Family Stress and Family Resiliency's Effects on Family Adaptation - Elderly Family care Services Targets on -

손병일, 정민숙
남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Byoung-il Son(bison1234@naver.com), Min-Suk Jung(welfarej@nambu.ac.)

요약

본 연구는 재가요양서비스 부양가족의 가족스트레스와 가족탄력성이 어떤 경로를 통해 가족적응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광주·전남 재가요양서비스 노인의 부양가족 203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재가요양서비스 부양가족의 가족스트레스는 가족적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고 가족탄력요인 중 의사소통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보면 가족탄력성은 스트레스 보다 가족적응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가족적응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가족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기존의 결점시각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가족탄력성의 강점관점으로 전환이 이루어져야 함을 제안한다.

■ 중심어 : | 재가요양서비스 | 가족스트레스 | 가족탄력성 | 가족적응 |

Abstract

Home care services, this study dependent family resilience and family stress, family adaptation through any route in order to examine the impact the Gwangju · JeonNam home care services for elderly dependents, a survey of 203 people was conducted. The study of home care services dependent family adaptation family stress family tension without affecting the direct communication of the factors affecting indirectly through was. Based on the results of these studies look more family stress, family resilience to adapt because it affects family adaptability in order to improve the existing defects to reduce family stress perspective rather than focusing on the strengths of family resilience must be done in terms of the transition is proposed.

■ keyword : | Home Care Services | Family Stress | Family Resilience | Family Adaptation |

I. 서론

현대사회는 의료기술 발달 등으로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어 노년기의 삶이 연장되고 있다. 하지만, 고령화

로 인한 만성질환과 장애 등으로 가족에게 장기보호를 받아야 하는 노인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현대사회의 핵가족화로 인한 전통적 부양역의 변화와 여성의 취업 및 사회참여 확대 등으로 가족의 부양시간

이 축소되고 있다. 광석혜(2002)는 만성질환은 어느 시점에서 치유되거나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일생동안 조절해야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1]. 이와 같은 현실에서 가정 내 여성의 전적인 노인부양 부담에서 국가적·사회적 책임으로 확대시켜서 노인부양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사회보험제도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이로 인하여 만성질환과 장애 등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노인을 가정과 장기요양서비스 기관이 전문적인 요양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삶의 질이 향상될 것이라 판단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요양서비스 대상자의 부양가족에게는 부담감과 가족 간 갈등이 부양의 질과 삶의 만족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2-11]. 이처럼 노인환자 부양에 따른 다양한 스트레스는 부양기간과 부양가족이 느끼는 역할 과부하를 통하여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준다고 할 것이다. 때문에 부양에 대한 스트레스 문제는 가족 내 가족적응과 연관되어 진다. 노인의 부양스트레스에도 불구하고 가족이 긍정적인 적응을 한다면 이는 하나의 가족체로서 가족전체의 안정감 뿐 만 아니라 노인의 장기간 가족보호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영향에 의한 가족탄력모델은 적응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중요한 목표로서 개인과 가족의 긍정적인 행동패턴과 기능적인 능력으로 정의될 수 있다[12]. 따라서 본 연구는 재가요양서비스 부양가족은 가족 내에 어떤 특성이 있는가 하는 문제 인식에서 시작하였다. 특히 부양가족 내에 존재하는 가족탄력성이 가족에 게 어떤 영향을 미쳐서 성공적인 가족적응을 이루는가를 밝히기 위하여 McCubbin and McCubbin(1993) 모델 적용하여 규명하고자 한다[13]. 또한, 이 모델이 우리나라의 재가요양서비스 부양가족에게도 적용이 가능한가를 밝혀서 재가요양서비스 부양가족에 대하여 가족스트레스와 가족탄력성이 가족적응의 관계를 파악하는데 목적이 있다.

II. 이론적 배경

지금까지의 연구에서 가족탄력성은 학자들마다 다양

하게 제시하고 있는데, McCubbin and McCubbin(1993)은 가족의 응집력, 가족내구력, 가족의사소통유형, 사회적지지등을 들었다[13]. Singer et al.(1993)은 유연한 의미 해석, 균형 잡힌 대처, 유연한 상호공존을 [14], Walsh(1996)는 신념체계, 조직패턴, 의사소통과정을 가족탄력성요인으로 들었으며[15], Black et al.(2008)은 긍정적인 견해, 영성, 가족구성원의 조화, 융통성, 의사소통, 재정관리, 가족시간, 관례와 의식, 지지연결망을 가족 탄력요인으로 들었다[16]. 즉, 가족탄력성은 가족적응을 돕는 유의미한 요인들이라고 할 수 있다. 가족적응을 설명하고자 가족탄력성모델을 적용한 연구는 McCubbin and McCubbin(1993)과 Walsh(2002)가 대표적인데, 가족 탄력성이론의 관점에서 재가요양서비스 부양가족의 적응을 연구해 보는 것은 의의가 있을 것이다[13][17].

1. 가족스트레스, 가족탄력성, 가족적응

인간의 정서 중 스트레스는 삶의 전부이라고 할 만큼 스트레스는 모든 인간의 삶에 내재 되어 있다. 인간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인 가족 역시 스트레스를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즉 가족스트레스란 어떤 사건이나 상황으로 인해 가족체계의 역기능적 상태와 기존의 상태로 유지되기 어려운 불안정한 생리적 체계, 부정적인 변화와 유해자극적인 환경의 압력과 긴장이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노화로 인한 만성질환자 부양가족의 가족스트레스는 더욱 그러할 것이다.

가족탄력성은 강점관점의 수용과 개인탄력성에 대한 연구에서 파생된 상대적으로 새로운 이론적 구성체로서, 가족 내의 개인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가족을 하나의 전체적인 기능 단위로 보고자 하는 것이다 [13][18-20]. Valentine and Feinauer(1993)는 가족탄력성은 역경을 극복하고 스트레스에서 생존하며 불리한 조건에서 일어나는 능력이라고 하였다[21][22]. Haley et al.(1996)은 가족이 삶의 도전을 긍정적인 결과로 귀결시키는 강점을 구성하는 능력이라 하였고[19], Walsh(1996)는 위기상황, 스트레스에도 불구하고 가족들이 잘 적응하거나 오히려 성공적인 적응을 하는 원리라고 하였다[15]. 그 후 Walsh(2002)는 단순히 스트레

스 사건을 다루고 생존할 수 있게 되는 것에서 머무는 것뿐만 아니라 인격이 변화되고 관계적인 성장을 이루는 것과 관련되는 것이라고 확장하였다[17][23]. 따라서 가족탄력성이란 가족이 위기상황이나 역경에 직면하면 더 인내하고 다시 일어나 강해지려는 원상회복적 적응에 대한 유연성 등이라 할 수 있다.

적응이란 Lazarus and Folkman(1984)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개인의 내·외적 자원을 활용하여 스트레스에 대처한 결과이고[24][25], Germain(1999)은 개인이 일생동안 성장하면서 생산적 기능들을 충족하고, 그 환경에 대한 적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으로 정의하였다[26][27].

Rutter(1987)는 가족적응이란 위협에 반응하는 개인적 변인들의 결과로 산출되는 것이라고 했으며[28], Werner(1989)는 스트레스 적 생활사건에 효과적 적응을 하는 것이라고 하였으며[29][30], NNFR(The National Network for Family Resiliency, 1993)은 삶의 도전에 긍정적으로 대응하는 강점을 가꾸는 가족의 능력이라고 정의하였고[31][32], Wolin et al.(1993)은 최악의 시간이 최상의 시간이 되도록 하는 가족의 능력이라고 하였다[33][29]. 기화, 정남운(2004)은 가족적응이란 위기 상황에서 새로운 균형, 조화, 응집 수준을 달성하기 위해서 상호 노력해 나가는 과정이라 하였고[34], 이은희, 구정화(2009)는 가족 개개인이나 가족 집단이 가족사회 체계내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거나 일으키는 생활사건에 직면하였을 때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거나 해결하려는 노력을 통해 가족 간의 통합성이 잘 유지되는 것이라고 하였다[35]. 따라서 가족적응이란 가족체계가 상황에 따라 가족관계의 발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응하여 가족의 구조와 역할 관계 및 역할관계의 규칙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 즉, 융통성의 정도를 뜻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2. 선행연구

가족스트레스와 가족탄력성과의 관계를 보면, 이은희, 손정민(2008)은 가족스트레스는 내구력과 의사소통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모든 가족들은 의사소통의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양 형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지 할 때, 가족 의사소통의 질은 가족들이 긴장과 스트레스를 다루고 만족스러운 수준의 가족기능, 조정, 적응을 획득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였다[9].

가족스트레스와 가족적응과의 관계를 보면, McCubbin(1988)은 가족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야기되는 제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지 못하거나 부적절하게 대처함으로써 요구가 계속 축적되는 경향이 많다고 하였고[36], Rolland(1994)는 가족의 심리사회적 요구는 심각한 질병의 다양한 과정과 마찬가지로 그 적응과정속에서 시간에 걸쳐 변화하며, 개인과 가족생활 사이클 경로와의 상호작용 속에서 변화한다고 하였다[37][30]. 정현주(2008)는 자폐아동가족의 스트레스와 가족적응이 자폐아동의 사회적응에 미치는 연구에서 가족스트레스가 가족적응에 영향을 미치며, 가족탄력성의 하위차원 중 의사소통의 요인이 가족스트레스와 가족적응간의 관계에서 조절효과가 있다고 하였다[38].

가족탄력성과 가족적응과의 관계를 보면, 김미옥(2001)은 장애아동의 가족적응과 장애아동의 사회성에 대한 연구에서 가족탄력성이 가족적응과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39], 구정화(2005)는 한 가족의 가족탄력성이 가족적응에 미치는 영향에서 의사소통 시 선동적인 의사소통 유형을 많이 활용하고, 가족의 통제력과 가족관여가 있을 때 가족적응이 잘될 수 있다고 하였다[40]. 이은희, 손정민(2008)은 가족탄력성 중에 사회적지지가 가족적응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는데, 가족원들이 이용 가능한 모든 사회적지지 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하였다. 가족의 사회적지지 체계를 결정짓는 데는 환경뿐만 아니라 타인과 보다 기술적으로 상호작용 할 수 있는 가족들의 능력도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9]. 송순인(2009)은 정신장애인 가족의 스트레스는 가족적응에 부정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정신장애인 가족의 스트레스가 높아질수록 가족적응의 수준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였다[23].

또한 가족스트레스, 가족탄력성, 적응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가족탄력성이 치매노인 부양가족의 스트레스

가 가족적응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감소시키는지를 알아본 결과, 가족탄력성의 하위요인 스트레스와 의사소통과정의 상호작용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가족적응에 대한 스트레스의 부적 영향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가족탄력성의 조절효과를 입증하였다[41]. 정현주(2009)는 자폐성 장애아동의 스트레스와 사회적응과의 관계 속에서 가족탄력성이 미치는 조절효과를 알아본 결과, 가족탄력성의 하위요인 중 의사소통이 조절효과가 있다고 하였다[42][43].

이들의 연구를 종합해볼 때 가족탄력성은 스트레스가 가족적응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조절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스트레스가 낮을수록 가족적응력이 높아진다는 것을 언급한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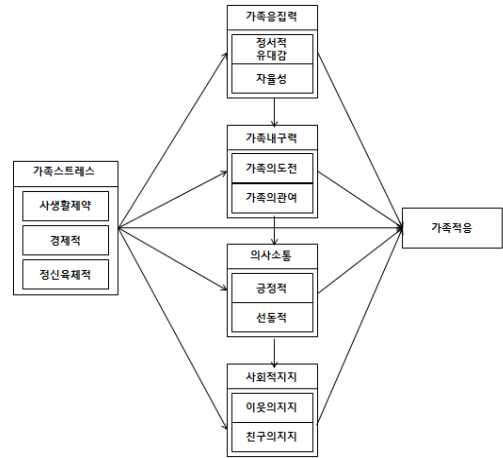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대상은 광주·전남에 거주하는 재가요양 서비스 부양가족을 대상으로 그들에게 사전협조를 얻어 연구목적과 조사내용 및 조사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동의를 구한 후 대상자에게 직접 배포하여 실시하였다. 자료수집 기간은 2013년 5월 2일부터 5월 23일까지이며, 223부를 배포하여 설문지중 응답이 불분명하거나 응답항목을 누락한 사례로 자료로써 가치가 없는 20부를 제외하고, 203부를 최종 분석하였다.

2. 연구모형

가족스트레스를 가족탄력성인들과 가족적응과 연결하여 유의미한 경로를 찾고자 하여 이론적 배경과 연구문제를 살펴 McCubbin et al.(1996)과 이은희, 손정민(2008)의 연구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연구 모형을 설정하였다[9][44].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 과제를 설정하였다.

- 연구문제 1: 가족스트레스는 가족탄력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연구문제 2: 가족스트레스는 가족적응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연구문제 3: 가족탄력성은 가족적응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3. 연구척도

본 연구의 조사도구는 선행연구를 고찰하여 필요한 문항을 보완 및 수정하였다. 설문지의 조사내용은 크게 네 부분으로 구성하고 77개 항목으로 재구성 하였다.

표 1. 척도의 구성

구분	주요내용	항목
일반적인 특성	·인구사회학적 특성 ·재가요양서비스 대상자의 특성	9
가족스트레스	·생활 환경적 ·경제적 ·정신육체적 ·죄책감	11
가족탄력성	·가족응집력 ·가족내구력 ·사회적 지지 ·의사소통	49
가족적응	·자율성 ·정서적유대감	8
합계		77

가족스트레스는 이은희, 손정민(2008), 조혜련(2009), 이은희, 구정화(2009) 등이 사용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9][45][35]. 가족탄력성 중 가족응집력은 McCubbin et al.(1982)의 FCCI(Family Coping Coherence Index), 가족내구력은 McCubbin et al.(1986)의 FHI(Family Hardiness Index), 사회적 지지는 McCubbin et al.(1982)의 SSI(Social Support Index), 의사소통은 McCubbin et al.(1986)의 FPSC(Family Problem Solving Communication)을 사용하였다[46][47]. 가족적응은 McCubbin et al.(1982)의 FMWBI(Family Member Wellbeing Index)를 사용하였다[9][35][46].

4. 자료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본 연구의 자료를 분석하기 위하여 SPSS for Windows 12.0과 AMOS 7.0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조사대상자인 재가요양서비스 부양가족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재가요양서비스 대상자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고, 설문 신뢰도와 타당도를 분석하며, 요인간의 상관분석을 하였다. 이 결과를 토대로 연구모형의 적합도를 분석한 후 가족스트레스와 가족탄력성과 가족적응의 경로를 분석하기 위해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5. 신뢰도 분석

신뢰도 검증을 위해 Cronbach α 분석을 실시한 결과, 가족스트레스 요인은 사생활제약 $\alpha=.809$, 경제적 $\alpha=.792$, 정신·육체적 $\alpha=.820$, 죄책감 $\alpha=.781$ 로 나타났고, 가족응집력 요인은 정서적유대감 $\alpha=.669$, 자율성 $\alpha=.844$ 로 나타났다. 또한, 가족내구력 요인은 가족의 통제 $\alpha=.753$, 가족의 관여 $\alpha=.763$, 가족의 도전 $\alpha=.635$ 로 나타났고, 사회적 지지 요인은 가족의지지 $\alpha=.775$, 이웃의지지 $\alpha=.811$, 친구의지지 $\alpha=.868$ 로 나타났다. 그리고 의사소통 요인은 긍정적 의사소통 $\alpha=.871$, 선동적 의사소통 $\alpha=.762$ 로 나타났고, 가족적응은 $\alpha=.917$ 로 나타났다. 모든 신뢰계수가 .600이상으로 모든 요인들이 신뢰도가 있다고 판단되어 진다.

IV. 연구결과 분석

1.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 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2]와 [표 3]과 같이 나타났다. 전체 조사대상 부양노인 203명 중 성별은 여자 148명(72.9%), 부양 노인의 연령은 76~80세 61명(30%), 부양자의 성별은 여자 173명(85.2%), 연령은 50대 98명(48.3%), 직업 유무는 있다 125명(61.6%), 노인을 대신 간호해 줄 사람 여부는 있다 113명(55.7%)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특히 부양자의 평균소득(200만 원 이하가 약 47%)이 낮기 때문에 요양시설보다는 재가서비스를 하고 있다고 판단되어진다.

표 2. 인구사회학적 특성(1)

항목	구분	빈도	백분율	항목	구분	빈도	백분율
노인 성별	남	55	27.1	부양자 연령	39세미만	4	2.0
	여	148	72.9		40대	80	39.4
노인 연령	69세미만	15	7.4		50대	98	48.3
	70-75세	35	17.2		60대	13	6.4
	76-80세	61	30.0	70대이상	8	3.9	
	81-85세	58	28.6	부양자 직업	있다	125	61.6
	86세이상	33	16.3		없다	78	38.4
부양자 성별	무응답	1	.5	대신 간호 여부	있다	113	55.7
	남	30	14.8		없다	90	44.3
	여	173	85.2	합계	203	100	

표 3. 인구사회학적 특성(2)

항목	구분	빈도	백분율
부양자 평균 소득	100만원 미만	47	23.2
	100~200만원	50	24.6
	200~300만원	37	18.2
	300~400만원	37	18.2
	400만원이상	30	14.8
	무응답	2	1.0
노인 간호 시간	1시간~4시간	87	42.9
	4시간~8시간	62	30.5
	8시간~12시간	33	16.3
	12시간~16시간	14	6.9
	16시간 이상	6	3.0
병 시작	무응답	1	.5
	약 6개월전부터	30	14.8
	약 1년전부터	36	17.7
	약 1년 6개월전부터	23	11.3
	약 2년전부터	30	14.8
	약 2년 이전부터	81	39.9
무응답	3	1.5	
합계		203	100.0

전체 조사대상자의 평균소득은 100만원~200만원 50명(24.6%), 노인 간호 시간은 1시간~4시간이 87명(42.9%), 노인이 처음으로 병 시작 기간에 약 2년 이전부터 81명(39.9%)으로 각 항목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2. 상관관계분석

설계된 모형의 적합도를 분석하기 위해 먼저 요인간의 상관관계 계수를 분석하였다. 각 요인간의 상관관계를 보면 가족스트레스의 하위요인인 정신육체적과 경제적 가장 높은 상관관계($r=.659, **p<.01$)를 보이고 가족스트레스 하위요인인 죄책감과 가족적응이 가장 낮은 상관관계($r=-.014$)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관관계 분석 결과는 [표 4]와 같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모형의 적합도는 대체적으로 해당 조건에 만족하게 제시되었다.

3. 모형분석

연구모형 [그림 1]과 같이 모형을 분석하였으나 모형 적합도에 다소 무리가 있어서 모델을 수정한 후 다시

모형 적합도 검증을 실시하였다. 수정모델의 적합도 지수는 [표 5]에 나타난 바와 같이 $\chi^2=138.804(df=50)$, $GFI=.900$, $CFI=.908$, $IFI=.909$, $RMR=.042$, $RMSEA=.094$ 로 나타나 모형의 수정과정을 거쳐서 확정된 수정모형이 전체적으로 높은 적합도를 나타내고 있다.

표 5. 수정모델의 적합도

구분	df	χ^2	χ^2/df	RMSEA	RMR	GFI	CFI	IFI
내용	50	138.804	2.776	.094	.042	.900	.908	.909

[그림 2]는 수정모델에 대한 분석결과가 제시되어 있는데 가족스트레스는 죄책감을 제거한 사생활제약, 경제적, 정신·육체적 요인, 가족응집력은 정서적유대감, 자율성 요인, 가족내구력은 가족의 통제를 제거한 가족의 관여, 가족의 도전 요인, 의사소통은 긍정적 의사소통, 선동적 의사소통 요인, 사회적 지지는 가족의 지지를 제거한 이웃의지지, 친구의지지 요인이 최종적으로 분석에 이용하였다.

표 4. 상관관계분석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 사생활 제약	1														
2. 경제적	.550**	1													
3. 정신육체적	.562**	.659**	1												
4. 죄책감	.316**	.390**	.520**	1											
5. 정서적 유대감	.117	.129	.163*	.054	1										
6. 자율성	.108	.195**	.198**	.074	.645**	1									
7. 가족의 통제	-.040	-.155*	-.159*	-.072	-.097	-.172*	1								
8. 가족의 관여	.106	.068	.063	-.092	.553**	.598**	-.120	1							
9. 가족의 도전	.178*	.094	.044	.051	.341**	.351**	-.111	.566**	1						
10. 가족의 지지	-.015	-.103	-.190**	-.037	-.290**	-.393**	.397**	-.311**	-.234**	1					
11. 이웃의 지지	.095	.186**	.222**	.076	.250**	.316**	-.213**	.338**	.250**	-.294**	1				
12. 친구의 지지	.036	.143*	.137	.045	.362**	.504**	-.144*	.506**	.345**	-.432**	.550**	1			
13. 긍정적	.052	.066	.026	.016	.522**	.531**	-.150*	.618**	.479**	-.414**	.467**	.582**	1		
14. 선동적	-.066	-.028	-.090	.068	-.233**	-.432**	.319**	-.375**	-.133	.477**	-.346**	-.345**	-.371**	1	
15. 가족적응	-.150*	-.152*	-.190**	-.014	-.168*	-.309**	.378**	-.246**	-.234**	.503**	-.305**	-.391**	-.358**	.565**	1
m	3.44	3.37	3.61	3.61	2.54	2.44	3.37	2.55	2.78	3.57	2.69	2.44	2.53	3.49	3.56
sd	0.84	0.85	0.85	0.85	0.64	0.79	0.75	0.61	0.60	0.93	0.83	0.85	0.75	0.88	0.86

* $p<.05$ ** $p<.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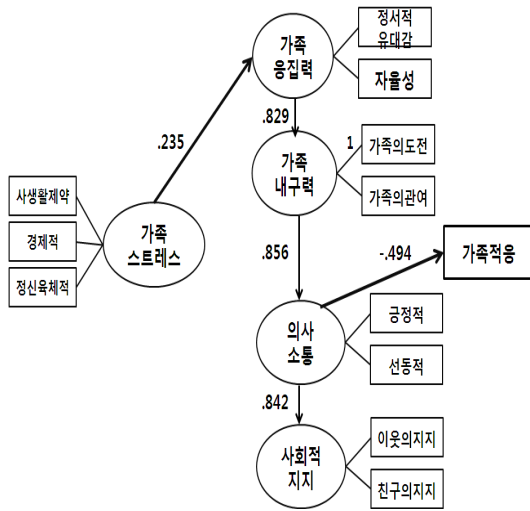


그림 2. 수정모델

가족스트레스는 가족응집력에 .235로 유의미하게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가족응집력은 가족내구력에 .829로 유의미하게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가족내구력은 의사소통에 .856으로 유의미하게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소통은 사회적지지에 .842로 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나 가족적응에는 -.494로 유의미하게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소통에서 가족적응으로 부적인 영향이 높은 이유는 의사소통의 하위 요인 중 부적 영향인 선동적 의사소통이 정적 영향인 긍정적적인 의사소통보다 더 높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선행연구자인 구정화(2005)는 한 가족의 가족탄력성이 가족적응에 미치는 영향에서 의사소통 시 선동적인 의사소통 유형을 많이 활용하고[40], 이은희, 손정민(2008)의 연구에서도 모든 가족들은 의사소통의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양 형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지 할 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고 하였다[9].

수정모델의 경로계수는 [표 6]과 같이 나타났다.

표 6. 수정모델의 경로계수

경로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S.E.	C.R.
가족응집력 ← 가족스트레스	.201	.235	.073	2.730
가족내구력 ← 가족응집력	.626	.829	.087	7.197
의사소통 ← 가족내구력	1.441	.856	.184	7.818
사회적지지 ← 의사소통	.737	.842	.100	7.345
가족적응 ← 의사소통	-.688	-.494	.103	-6.696
정신육체적 ← 가족스트레스	1.219	.822	.135	9.015
경제적 ← 가족스트레스	1.191	.802	.132	9.020
사생활제한 ← 가족스트레스	1.000	.684		
정서적유대감 ← 가족응집력	1.000	.759		
자율성 ← 가족응집력	1.384	.854	.135	10.260
가족의도전 ← 가족내구력	1.000	.610		
가족의관여 ← 가족내구력	1.413	.856	.163	8.648
긍정적 ← 의사소통	1.000	.821		
선동적 ← 의사소통	-.749	-.527	.104	-7.184
이웃의지지 ← 사회적지지	1.000	.651		
친구의지지 ← 사회적지지	1.331	.845	.164	8.117

V. 결론

1. 결과

본 연구는 가족스트레스와 가족탄력성이 재가요양서비스 부양가족의 가족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여 부양가족의 스트레스를 감소시킬 수 있는 예방적 차원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임상사회사업 실천 개입시 도움이 될 수 있는 실증적인 지식을 얻고자 함을 목적으로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족탄력성의 하위요인들이 가족스트레스와 가족적응의 관계에서 어떤 경로를 통해 가족적응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McCubbin et al.(1993)의 가족탄력모델과 선행연구결과 McCubbin(1996)에 근거하여 설정한 가설적 모델을 구조방정식 모형을 이용하여 검증한 결과 모형의 적합도가 다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13][44].

둘째, 모형의 적합도도 높이고 간명도도 보다 높은 최적의 모형을 구성하기 위하여 가설적 모델의 분석결과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난 경로를 제거한 후 최종 모

델을 구성한 결과 가족스트레스는 가족적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탄력요인을 매개요인으로 하여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가족스트레스가 가족적응에 직접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선행연구들과는 달리 [34][41], 가족스트레스가 가족적응에 직접적인 영향은 미치지 않고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결과들과는 일치한 것으로 나타나 가족적응 향상을 위해서는 가족스트레스에 대한 개입보다 가족탄력성에 대한 개입이 보다 효과적이라는 결론과도 일치한다 [7][49].

셋째, 최종 모델의 경로도를 살펴보면, 네 가지 유의미한 경로도 가운데 가족응집력→가족내구력→가족의사소통→사회적지지로 연결된 경로도가 가족적응에 미치는 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족의 문제해결에 대한 대처능력을 결정짓는 가족의 응집력은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선행 연구들보다 더욱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의사소통이 사회학적 지지자원에까지 영향을 미침으로써 결국 가족적응에 영향이 미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2. 제언

본 연구검증을 통한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가족스트레스가 가족적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가족탄력 요인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가족적응 향상을 위해서는 부정적 문제 중심의 가족스트레스요인 감소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강점 이론적 관점에서 가족탄력성 요인을 강화시켜 줌으로써 가족적응향상을 도모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가족적응력 향상을 위한 개입을 계획하는데 중요한 함의를 지닌다.

첫째, 가족적응에 직접적으로 가장 높은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긍정적 의사소통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가족구성원이 자아를 존중하고 자신의 행동을 인지하며 타인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능력을 향상 시키며, 어떤 상황판단에 따른 적절한 의사표현 등의

모든 사회적지지 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나 사회적인 문화·교육체계가 필요할 것이다.

둘째, 가족들은 의사소통이 긍정성과 부정성의 양 형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상호 인지하고 조정하면서 효과적인 의사소통인 비선동적이고 호의적인 의사소통기술을 향상시켜야 할 것이다. 즉 가족 상호간의 감정을 공유하거나 가족 간의 정신적 교류, 감정이입 등을 인터넷이나 문자로 교환하며 공통적 이해를 도모하는 방법도 가족적응을 향상시키는 방법이 될 것이다.

셋째, 가족구성원이 가족체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가족 내 많은 활동을 서로 공유하고 효율적 해결능력을 위한 가족구성원의 역할에 대하여 공감하는 기술을 습득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재가요양서비스 부양가족의 가족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요인들로 구성된 가족탄성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가족구성원에 대한 개별적·사회적인 보상적 급여체계뿐만 아니라 각종 지원 프로그램들이 추진됨으로써 건강한 가족관계가 형성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 문헌

- [1] 광성혜, *만성질환환자와 환자가족의심리적문제 및 갈등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 [2] S. W. Poulshock and G. T. Deimling, "Families caring elders in residence: Issues in the measurement of burden," *Journal of Gerontology*, Vol.39, No.2, pp.230-239, 1984.
- [3] S. H. Zarit, P. A. Todd, and J. M. Zarit, "Subjective burden of husbands and wives as care giving: A longitudinal study," *The Gerontologist*, Vol.20, No.3, pp.260-266, 1986.
- [4] M. Novak and C. Guest, "Application of multidimensional care giver burden inventory," *The Gerontologist*, Vol.29, No.6, pp.171-182, 1989.

- [5] 이가옥, 이미진, “장기요양보호노인 가족수발자의 정서적 부양부담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제20권, 제2호, pp.215-228, 2000.
- [6] 박주영, *뇌졸중 노인 부양자의 부양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요인 연구*, 이화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 [7] 강혜원, *소아암 환자 가족의 적응에 관한 연구: 가족탄력성 개념을 중심으로*, 숭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2003.
- [8] 채명옥, “만성질환아 가족의 기능 회복력 측정 도구 검증”, 이화여자대학교, 간호과학연구, 제16권, 제2호, pp.51-59, 2004.
- [9] 이은희, 손정민, “가족탄력성이 만성질환아 가족의 적응에 미치는 영향 연구”, 한국아동복지학, 제27권, pp.97-120, 2008.
- [10] 김용희, 안정선, “장기요양서비스 이용노인 및 노인부양가족의 스트레스, 생활만족도 및 서비스 만족도”, 한국노인복지학회, 제57권, pp.161-189, 2009.
- [11] 백용운, 최수일, “장기요양노인을 돌보는 가족 부양자의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노인복지연구, 제49권, 제3호, pp.15-240, 2010.
- [12] 이은희, “가족탄력도모델을 이용한 정신분열병 가족의 부적응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제1권, pp.173-200, 2000.
- [13] H. I. McCubbin and M. A. McCubbin, “Typologies of resilient families: Emerging roles of social class and ethnicity,” *Family Relations*, Vol.37, pp.247-254, 1993.
- [14] G. H. S. Singer and L. E. Powers, “*Families, disability, and empowerment*,” Paul H. Brookers Publishing Co, 1993.
- [15] F. Walsh, “The concept of Family Resilience: Crisis and Challenge”, *Family Process*, Vol.35, pp.261-281, 1996.
- [16] B. Keri and L. Marie, “A Conceptual Review of Family Resilience Factors,” *Journal of Family Nursing*, Fed, Vol.14, No.1, 2008.
- [17] F. Walsh, “Strengthening family framework : Innovative practice application,” *Family Relations*, Vol.51, No.2, pp.130-137, 2002.
- [18] McCubbin, “*Resiliency in families: A conceptual model off family adjustment and adaptation in response to stress and crisis*,” In H. I. McCubbin, A. I. Thmpson & M. A. McCubbin, *Famliyassessment: Resiliency, coping and adaptation- inventories for research and prectice*,” Madison: university of wisconsin System. 1998.
- [19] D. R. Hawley and L. Dehaan, “Toward a definition of family resilience: Integrating life-span and family perspectives,” *Family Processes*, Vol.35, pp.283-298, 1996.
- [20] 서명식, *장애인 형제의 사회적응에 관한 가족탄력성 효과*, 대전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5.
- [21] L. Valentine and L. L. Feinauer, “Reality and myth in family life: Changes across generation,” *Journal of Psychotherapy and the family*, Vol.4, pp.141-165, 1993.
- [22] 이유리, *주보호제공자가인지한정신장애인의 기여에 관한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박사학위 논문, 2008.
- [23] 송순인, *정신장애인 가족스트레스와 가족적응 간의 가족탄력성 조절효과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2009.
- [24] R. S. Lazarus and S. Folkman, *Stress, Appraisal, and Coping*, New York : Springer Publishing Comp-any, 1984.
- [25] 김유진, 김영희, “일상생활스트레스와 자아탄력성이 아동의 부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관계학회지*, 제14권, 제2호, pp.123-142, 2009.
- [26] C. B. Germain, *Social Work Practice: People and Environments*,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99.
- [27] 안영선, 전혜정, “알코올 중독자 가족의 가족탄력성이 가족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관계*

- 학회지, 제15권, 제3호, pp.155-174, 2010.
- [28] M. Rutter, "Psychosocial resilience and protective mechanisms,"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Vol.57, pp.316-331, 1987.
- [29] E. Werner, "High-risk children in youth and adulthood: A longitudinal study from birth to 32 years,"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Vol.59, 1989.
- [30] 이선애, *만성질환아동가족의 가족 탄력성이 가족적응에 미치는 영향*,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2004.
- [31] National Network for Family Resiliency, *Understanding resiliency*, 1996.
- [32] 현은민, "스트레스와 가족탄력성이 여성 한 부모가족의 적응에 미치는 효과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제13권, 제4호, pp.59-84, 2008.
- [33] S. Wolin and S. Wolin, *The resilient self: How survivors of troubled families rise above adversity*, New York: Villard, 1993.
- [34] 기화, 정남운, "만성질환 아동을 둔 가족의 심리적 적응에 관한 가족탄력성 모형의 검증", *한국심리학회*, 제9권, 제1호, pp.1-24, 2004.
- [35] 이은희, 구정화, "가족탄력성이 한부모가족의 적응에 미치는 영향 연구", *한국가족관계학회지*, 제14권, 제1호, pp.61-80, 2009.
- [36] H. I. McCubbin and A. I. Thompson, "Typologies of resilient families: Emerging roles of social class and ethnicity," *Family Relation*, Vol.37, No.3, pp.47-254, 1988.
- [37] J. S. Rolland, *Families, illness, and disability: An integrative treatment model*, NewYork: Basic Books, 1994.
- [38] 정현주, "자폐아동 가족의 스트레스와 가족적응이 자폐아동의 사회적응에 미치는 경로분석: 가족탄력성의 조절효과 검증", *한국가족복지학*, 제13권, pp.89-110, 2008.
- [39] 김미옥, *장애아동가족의 적응과 아동의 사회적 능력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1.
- [40] 구정화, *한 부모 가족의 가족탄력성이 가족적응에 미치는 영향: 울산광역시를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사회과학대학원 사회복지전공, 석사학위 청구논문, 2005.
- [41] 윤수희, *가족탄력성이 치매노인 부양가족의 적응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5.
- [42] 정현주, *자폐성장애키아동의 가족스트레스와사회적응과의 관계: 가족탄력성과 사회적지지의 조절효과 분석*, 동신대학교, 대학원박사학위논문, 2009.
- [43] 강효경, 유장순, "장애아동가족의 스트레스가 문제해결능력에 미치는 영향. -가족탄력성 조절효과 중심으로-", *초등상담연구*, 제3권, pp.427-446, 2012.
- [44] H. I. McCubbin and M. A. McCubbin, *Resiliency in families: Aconceptual model of family adjustmen tand adaptation in response to stress and crisis*. In H. MaCubbin, A. Thompson, & M. McCubbin(Eds.), *Family assessment: Resiliency, coping and adaptation, inventories for research and practice*, Madison: University of Wisconsin System, 1996.
- [45] 조혜련, *가족탄력성이 뇌졸중환자 가족의 적응에 미치는 영향*, 동국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9.
- [46] H. I. McCubbin, A. E. Cauble, and J. M. Patterson, *Family Stress, Coping and Social Support*, Springfield, IL: Charls C. Thomas, 1982.
- [47] H. I. McCubbin. and A. I. Thompson, *Family Hardiness index(FHI)*. In H. I. McCubbin, A. I.Thompson, and M. A. McCubbin. *Family assesment: Resiliency, coping and adaptation-inventories for research and practice*, Madison: University of Wisconsin, 1986.
- [48] 기화, *만성질환 아동 가족탄력성 모델검증:백혈병 환아 가족을 중심으로*, 카톨릭대학교, 석사학

위논문, 2003.

- [49] 오승아, “장애아동 가족의 수입, 내구력, 누적 스트레스, 의사소통, 가족적응에 대한 구조모델검증”, 대한가정학회, 제40권, 제9호, pp.175-189, 2002.

저 자 소 개

손 병 일 (Byoung-il Son)

정회원



- 2008년 2월 : 남부대학교 사회복지학과(사회복지학석사)
- 2013년 2월 : 남부대학교 사회복지학과(사회복지학박사 수료)
- 2011년 ~ 현재 : 남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겸임교수

<관심분야> : 노인, 사회복지실천, 지역사회복지

정 민 숙 (Min-Suk Chung)

정회원



- 1976년 2월 : 조선대학교 물리학과(이학사)
- 1998년 8월 : 서울여자대학교 사회사업학과(사회복지학석사)
- 2003년 2월 : 부산대학교 사회복지학과(사회복지학 박사)

- 2003년 3월 ~ 현재 : 남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관심분야> : 노인, 사회복지실천, 여성